

등락폭 커진 코스피… “반도체 중심 저평가 종목 매수 기회”

이달 일평균 일중 변동률 1.81%
한미 무역협상 타결 등 변수 산적
“변동성을 즐기는 전략 세워야”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학 개미’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거지’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 증시는 더 오를 수 있을까.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이들은 APEC을 전후 글로벌 증시를 ‘변동성’이란 한 단어로 요약했다. 호재가 나오면 투자심리를 회복해 반짝 상승했다가 악재가 터지면 취침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란 설명이다.

◆ APEC 등 변수많은 시장 변동성 ↑

코스피 하루 등락이 심해지고 있다. 이달(10월 1일~20일) 들어코스피의 일평균 일중 변동률은 1.86%로 2021년 2월(2.03%)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중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가 111.25포인트에 이르렀던 지난 14일에는 일중 변동률이 3.10%까지 치



ChatGPT로 생성한 ‘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를 앞둔 코스피’ 이미지.

솟아 작년 8월 7일(3.29%)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에도 2% 안팎의 일중 변동률을 유지 중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향후 코스피 방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이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24일 기준 VKOSPI는 전일 대비 2.15% 뚝 31.29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20.62) 대비로는 51.75% 오른 수치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에도 3500억달러 투자 우려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협상 결과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안정 여부가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또한 성사 가능성이 높지만, 선반영된 협상 기대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을 짓누를 변수는 여럿 있다. AP-EC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의 방한, 한미 무역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 등이 남아 있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은 기준금리 결정 등 글로벌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 “변동성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

시장 전문가들은 ‘변동성을 즐기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평가 종목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했다.

정 연구원은 “다음 주 이벤트 확인과 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급등 자산의 차익 실현 움직임 관측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주도주 차익 실현과 동시에 저평가 업종 등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찬 iM증권 연구원은 “조강력한 10월 코스피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 국면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반도체 강세, 한미 협상 기대감이 증시 견인했으나 강세를 보여왔던 반도체에서는 일부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자산 부양 효과의 부작용도 느껴지는 만큼 변동성 고민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를 관심 종목으로 꼽았다. AI(인공지능)발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을 타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2위(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업이 연일 질주하는 가운데, 24일 삼성전자(586조440억원), SK하이닉스(371조2810억원), 삼성전자우(63조7280억원)의 합산 시가총액은 1021조53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증가분은 전년 대비 각각 28조원, 22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38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익 증가 기여의 55% 이상이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혹평을 남겼던 모건스탠리도 24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1만1000원에서 12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48만원에서 57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 10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4% 올린 지 2주 만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가상자산 ‘분 단위’ 감시…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초단기 거래 분석 알고리즘 개발 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자동 적발

금융감독원이 주로 일 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 단위’로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약 2억원을 들여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에 증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분석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적발해준다.

금감원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주로 거래일 단위로 감시해왔다.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경우 짧으면 10분 이내에도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이상거래를 적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있지만 보안 등의 측면에서 감독당국이 직접 모니터링·분석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0개가 넘는 종목

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다 보니 초단기로 이뤄지는 매매 패턴을 인력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이현승 의원의 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이 적발해 처리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했고 밝힌 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

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모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는 수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이 외에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이른바 ‘경주마’ 수법, 거래소의 거래유 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가두리’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이러한 불공정거래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안 등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율 규제 역할을 담당할 법정 협회를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함양군 마을공동체 지원

NH투자증권이 경상남도 함양군 마을공동체를 찾아 농장고 40대를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왼쪽부터)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이재열 NH투자증권 동부본부장, 진병영 함양군수, 정영철 경남농협 경영본부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uper365’ 자산 15조 돌파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완전 제로(0)’ 혜택을 내세운 Super365는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와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 18일 이벤트를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16배가량 증가했다. 이달 20일 기준 예탁자산은 15조 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 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계좌 고객 수도 2만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해외자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Super365 계좌 내 해외자산은 9조 1862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은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금융사기 미리 대비하세요”… 계좌 개설·해외접속 등 간편 통제

금감원 Q&A

8가지 보안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부터 이체, 해외 접속까지 금융거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입니다. 한 번 신청만 해두시면 한국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새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완료되므로, 사기 피해를 인지했을 때 일정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설정해두시면 등록하신 PC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국내 IP가 아닌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여 해외 해커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인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잦으신 분들은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를 통해 거래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줄여두시면 혹시 모를 해킹 등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본인 명의의 전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 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